

《혼혈 파워》

혼혈에 관한 인류학적 보고서

글_ 권오길

이 책의 원명은 Breeding Between The Lines: Why Interracial People Healthier and More Attractive다. 그대로 번역하면 《동종이계(同種異系)의 번식: 왜 혼혈인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가》가 되겠다. 한 마디로, 잡종강세(雜種強勢, heterosis, hybrid vigour)라는 생물용어로 압축할 수

있다. hybrid는 잡종, 트기, 혼성물, 교잡 등의 의미가 들었고, vigour는 정력, 힘, 활력, 생기, 기세, 강장, 역셈... 좋은 말은 다 들었다! 결론은 “트기가 힘세!” 그래서 《혼혈 파워》가 된다.

아무튼 잡종강세는 동종끼리 이야기지만 보통은 이종교배(Out Crossing, 중간교배)에서 논한다. 암말과 수탕나귀 사이에서 덩치 크고, 아무거나 잘 먹으며 힘센 노새가 태어난다. 전형적인 잡종강세의 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불임성으로 새끼를 낳지 못한다. 만일에 중간교배가 가능하고 그 새끼가 새끼를 쳤다고 가정하

면 이 지구상에는 종의 혼란을 초래하여 ‘잡종’ 들로 꼭 찰 뻔했다.

동종교배(同種交配)는 다름 아닌 근친교배(Inbreeding)다. 근친교배는 동질(호모, homo) 유전자가 결합하기 때문에 종의 유지, 보존이란 점에서 일반적으로 불리하다. 치명적인 열성인자들과 해로운 유전인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적고, 왜소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개체를 생산하게 된다.

아무튼 잡종강세는 생물의 교잡에만 응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그렇다! 손전화기 하나만 해도 전화만 거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내지, 음악듣기, 사진 찍기 등, 별에 별게 다 들어있는 ‘잡종’ 이 아니던가. 음식에도 잡종음식인 ‘퓨전’ (fusion) 음식이 판을 친다. 여러 음식의 ‘좋은 유전자’ 가 만나서 더 맛있는 ‘강한 유전자’ 를 만들어낸다. 골프의 기재(奇才) 타이거 우즈가 동서양의 복잡한 가계(family line)를 가진 혼합된 피를 가졌고, 유명한 풋볼의 스트라이커 하인스 워드는 흑인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의 유전자가 섞인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혼혈’ 의 의미를 알고 책을 읽지는 뜻이었다. 지은이 앨러 지브는 심리생물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에 신경과학 분야 연구를 활발히 했고, UCLA에서 생물학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전국의 미국대학이나 기관을 돌면서 ‘혼혈’ 에 관한 강의했다. 단 그는 혼혈아가 아니라고 함. 율진이 윤재석 씨는 서울대(화



《혼혈 파워》 앨러 지브 지음 | 윤재석 옮김 | 부클북스 | 256쪽 | 값 10,000원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제42회 강원도 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 《바다는 건너는 달팽이》 《인체기행》 《달팽이》 《생물의 애육살이》 《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학), 연세대 대학원(경영학), 미시간대 대학원(저널리즘)을 끝내고 여러 신문사에서 중책을 맡았다고 하는데, 옮긴 이야말로 말 그대로 학문적인 '혼혈아'로 '잡종강세'의 이론에 딱 들어맞는 분이로다! 전공을 잘 살펴보시라! 본인에게 실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책을 들여다보자. 1장, '결혼 첫날밤, 부모님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어라'에서는 여러 가지 인종 간에 생겨나는 갈등을 논하고 있다. 미국에 1958년까지도 16개 주에서 다른 인종 사이에 결혼을 금지하는 '혼혈금지법'이 있었다고 소개한다.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하면 백인은 추방당하고, 흑인은 노예로서 소중했기에 추방당하는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2장의 '사탑(斜塔): 왜 좌우균형이 섹시할까? 피사의 사탑은 원래부터 기울어지게 되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옆으로 5.5도 기울어진 것 말고도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 바나나 모양을 한다. 사람이 그랬다면? 늙어빠진 노인 꼴로 너무나 볼품이 없을 뻔 했다. 좌우대칭을 만들어진 균형 잡힌 신체는 몸집도 더 크고 굵으며, 키도 더 크고 근육도 발달한다. 그래서 균형 잡힌 파트너가 더 매력적이며, 좌우균형은 성의 선택에도 좋다.

3장의 '탑의 건설'에서는, 어떤 유전자는 한 쪽에는 유해하더라도 다른 한 쪽이 도움이 된다면 진화는 그 유전자의 편을 들 것이다. 대표적으로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바뀌면서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빈혈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겸상세포증'(鎌狀細胞症, sickle cell anemia)은 말라리아에 저항력을 갖는다. 아프리카 등지에 학질이 심한 곳의 사람들에게는 겸상세포증이 되레 생명 유지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모두에 해를 주는 것은 없다!

4장에 '건설요원을 모으다: 인종 간 결혼의 이점'이 책의 핵이라고 봐도 좋다. 세균같이 무성생식을 하면 참 편하다. 파트너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번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유전자를 몽땅 후손에 전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성생식(섹스)은 복잡하고 귀찮을지 모르지만 두 파트너의 유전자를 섞어 이질집합체(異質集合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고, 이 유전적인 변이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변이의 뿌리는 섹스다. 결국 혼혈은 매우 다른 부모의 유전자가 결합하여 탄생한 것으로, 같은 인종끼리 결혼하여 생긴 아이들보다 유전자(DNA) 변이가 훨씬 커서 더 강건하고, 건강하고, 잘 생기고 좌우균형이 맞는 몸을 갖게 된다.

5장은 '답을 점검하다: 이론을 시험대에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혼혈의 모델, 배우, 음악가, 운동선수들이 그렇다. 타이거 우즈의 성공 탓에 그는 '위대한 흑인들의 희망(Great Black Hope)'로 떠올랐다! 타이거의 부모들도 혼혈로 1/4만이 흑인 피다. 그는 Cablinasian, 즉 Caucasian-Black-Indian-Asian이다. 복잡해도 아주 복잡한 혼혈이다. 식물도 여러 품종을 교배하여 성장이 빠르고 병에 강하고, 품질 좋은 육류, 곡식을 얻는 것이 다름 아닌 잡종강세다.

6장의 제목이 재미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 진화는 결국 한 가지 일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식량과 다른 자원을 찾아 나서고, 짝을 짓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약탈자를 피하는 일 모두는 아기를 만드는 경쟁이라는 큰 그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매력과 아름다움은 우리가 훌륭한 짝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개념일 뿐이다. 여성의 매력적인 특징(다산의 특징)은 모래시계같이 생긴 허리만이 아니다. 도톰한 입술과 작은 턱, 아름다운 뺨 또한 섹시한 생김새다. 남자의 매력도 다르지 않다. 그 매력들은 모두가 건강한 아기를 얻은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

7장, '인종간의 벽은 녹고 있는가?' 나는 인종혼합이 인종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불위스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문제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불가피하다. 서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지내고, 그 결과 공동체가 인종 면에서 더 다양해지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인종간의 청사진(거부감, 편견 등)도 총체적으로 변할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실로 지은이의 해박한 지식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생물학적 지식, 소양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정치, 종교, 역사, 문화적인 일들을 종횡무진 넘나든다. 한마디로 폭 빠져 감명 깊게 읽은 책이다. 생물에 관한 지식도 많이 얻은 것은 물론이다.

옮긴이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촌철살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결혼 9쌍 중에서 한 쌍은 국제결혼이다. 그것도 농어촌으로 가면 3쌍에 하나다. ...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오는 처녀들은 먼 훗날 우리 사회를 '잡종강세'로 진화시킬 귀한 선조가 될 것이다." **☞**